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 보도자료
 (본부장: 서미화 의원)

보도일시	2025. 5. 20.(화)	담 당 자	노혜담 선임비서관 (02-784-6441)
배포일시	배포 즉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2025 인천장애인단체 정책간담회’ 참석

- 서미화 본부장 인천광역시 소재 14개 장애인단체와 정책간담회 진행
- “차별 없는 ‘진짜 대한민국’ 위해 다양한 장애유형 반영한 지역 맞춤형 장애인 정책 필요”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본부장 서미화)는 오늘(화) 오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2층 세미나실에서 ‘2025 인천장애인단체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천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장애의 유형·정도·연령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장애인 정책을 주요 화두로 다루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미화 본부장,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계수 회장, 인천신장장애인협회 이순중 회장, 인천장애인기업협회 지주현 회장, 인천신체장애인복지협회 노희정 회장,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이규일 회장,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기남 회장, 인천자폐인사랑협회 오현주 회장, 인천장애인장학회 김재필 회장,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한금주 회장, 인천농아인협회 정희강 회장, 인천곰두리봉사회 홍병기 처장, 인천장애경제인협회 황경숙 처장, 인천정신보건가족협회 한호근 처장 등이 참석했다.
- 서미화 본부장은 간담회 이후 “오늘의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장애인이 삶의 모든 과정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인천지역 장애인단체의 정치참여를 독려했다.

-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는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단체들과의 정책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끝//

[붙임1] 2025 인천 장애인단체 정책간담회 현장사진



